



코아로직 '200대 베스트 기업' 선정

팹리스 반도체 회사인 코아로직(대표 황기수 www.corelogic.co.kr)이 포브스가 선정하는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Forbes Asia 200 Best Under A Billion)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코아로직이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브스는 매년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 매출 10억 달러 미만 중소기업 중 매출 및 수익 실적이 확실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이 돋보이는 200개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코아로직은 "이번 선정은 2006년도 1902억 원의 우수한 매출 실적에 기인한다"며 "올해 상반기 실적은 주춤하고 있으나, 사업확장을 통해 핸드셋의 SoC기술뿐만 아니라 모바일 디지털 시장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을 감안해 이번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고 풀이했다.

한편 포브스 선정 200대 베스트 중소기업을 아시아 국가별로 보면 대만이 41개사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이 23개사, 홍콩과 일본이 각각 22개사, 뒤를 이어 한국이 5위로 21개사가 리스트에 올라있다.

엠텍비전, 반도체 IC 월 1,000만 개 공급 돌파

엠텍비전(대표 이상민 www.mtekvision.com)은 지난 9월 기준으로 국내 팹리스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월 1,000만 개의 반도체 집적회로(IC)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엠텍비전은 2003년 9월 국내 최초로 시스템 IC 월 백만 개 공급을 시작한 이후 4년 만에 월 공급수량을 10배로 늘린 1,000만 개를 공급하게 됐다. 엠텍비전은 앞서 지난 2005년 12월 누적수량 1억 개, 올해 6월 누적수량 2억 개를 넘어섰다. 엠텍비전 관계자는 "이번 월 1,000만 개 공급달성은, 올해 2분기 이후 주력 3개 제품군의 고른 증가추세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MMP(모바일 멀티미디어 플랫폼)가 채택된 뮤직폰 모델이 연이어 출시되고 있고, 고화소 카메라폰의 필수부품화된 CSP(카메라 시그널 프로세서)의 공급이 국내 대형 거래처는 물론, 2분기부터 납품이 개시된 신규 해외거래처에도 증가하고 있으며, 저가폰 확대 추세에 맞추어 CCP(카메라 컨트롤 프로세서)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엠텍비전 영업본부 홍지영 상무는 "이번 월 1,000만 개 공급 돌파는 엠텍비전 뿐만 아니라 한국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로서도 의미 있는 기록"이라며 "3분기를 기점으로 국내외 대형 고객사들의 대량 물량 주문이 폭증함에 따라 앞으로 월 매출 기록 경신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베이스, 임베디드 디바이스 서버 모듈 '에디2.0' 출시

시리얼통신 전문업체인 시스템베이스(대표 김명현 www.sysbas.com)가 임베디드 디바이스 서버 모듈 '에디 2.0'을 출시했다.

디바이스 서버는 시리얼통신과 IP 기반 네트워크를 연결해 시리얼통신 기기를 원격지에서 IP네트워크로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에디 2.0은 이를 임베디드 모듈로 만든 제품이다. 리눅스 기반의 실시간 운영체제(RTOS) 레모닉

스'를 탑재해 개발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리얼 통신 환경에 제품을 최적화할 수 있다.

시스템베이스는 내달 말 와이파이(Wi-Fi) 기능을 지원하는 업그레이드 제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김명현 사장은 "에디 2.0 출시로 고객군을 IT서비스업체 및 유통업체에서 통신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까지로 확장하게 됐다"며 "고객들은 에디 2.0을 사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제품을 개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픽스트리, 방송 모니터링 장비 개발

모바일TV장비 업체인 픽스트리(대표 신재섭 www.pixtree.com)는 YTN과 공동으로 방송 서비스의 상태정보를 실시간 확인 할 수 있는 ETI 모니터링 시스템(모델명 PixDMB-EM100)을 개발했다.

이 제품은 지상파DMB 비디오 및 뮤직캠 등의 라디오 서비스 뿐만 아니라 BIFS를 포함한 지상파DMB 및 DAB 데이터 서비스 등 모든 기능을 모니터링 할 수 있다. ETI 및 RF 시그널의 입력을 지원하여 지상파DMB 방송의 송출 전후 상태를 7인치 WVGA급 TFT LCD를 통해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이 ETI나 RF 시그널 중 한개의 시그널만 지원하던 것과 달리 두 개의 시그널 모두를 지원,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픽스트리는 지난 9월 초 이 제품을 네덜란드에서 열린 IBC 전시회에 출품해 해외 바이어 및 업계 관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신재섭 사장은 "방송의 축적된 노하우를 보유한 YTN과 협업을 통해 실제 방송사에서 운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을 빠른 시기에 출시할 수 있었다"며 "해외에서도 차별화 된 기능을 인정받아 향후 유럽 DAB 서비스의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로 수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초소형 ISDB-T용 RF칩 개발

아이앤씨테크놀로지(대표 박창일 www.inctech.co.kr)는 세계 초소형 ISDB-T용(일본 DMB 규격) RF칩(모델명 StarRFG7200)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가 개발한 StarRFG7200은 일본 모바일TV 표준인 ISDB-T용으로, RF 신호를 베이스밴드에 가까운 신호로 곧바로 변환하는 기능을 한다. RF칩은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미약한 신호를 증폭시키고 잡음을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StarRFG7200은 그 크기가 기존 제품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세계 초소형(4x4) 칩으로, 이는 업계에서 출시된 ISDB-T용 RF칩 중 가장 작은 크기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은 전력소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의 경쟁사 제품의 전력소모량은 100mW에서 200mW 수준이지만, StarRFG7200은 60mW 아래의 최소 소비전력을 구현한다. 이를 통해 휴대폰 배터리의 수명도 연장되어 장시간 모바일TV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이앤씨테크놀로지는 지난 2002년 DMB 관련 RF IC 개발에 착수한 이후 2004년 RFT200이라는 T-DMB RF칩 양산을 시작, 일본 부품이 독점하던



RF 칩 분야에서 국산화를 선도했다. 최근 유통되는 국내 유수의 DMB 휴대폰과 네비게이션, PMP, 디지털카메라에 아이앤씨테크놀로지 제품이 사용되고 있으며 셋톱박스에 적용되는 범용 칩 부문에서는 국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부리멀티미디어, 8비트 MCU '코러스 투' 양산

팜리스 반도체 기업인 부리멀티미디어(대표 김태성 www.booree.com)는 8비트 마이크로컨트롤러유닛(MCU)인 '코러스 투(Chorus-II)'를 양산한다고 밝혔다.

코러스 투는 코러스 원(Chorus-I)을 잇는 두 번째 제품이다. 플래시 메모리 용량을 코러스 원의 8분의 1인 64KB로 줄여 원가를 낮추고 CPU 성능을 2배인 25MIPS(MIPs)로 높였으며 멀티채널 음성디코딩 기능과 USB 1.1 기능 등을 추가해 가전제품에서 쓰임새가 더욱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멀티채널 음성디코딩 기능은 동시에 3채널(기본음, 배경음악, 효과음)의 음성을 재생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출원을 마친 상태다.

김태성 사장은 "코러스 투로 세계적인 8비트 MCU 회사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에 뛰어 들었다"며 "이 제품은 기존에 고기능 제품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쌓은 노하우와 평판을 바탕으로 야심차게 개발한 데다 세계적으로 시장에 없는 제품이라 국내 외에서 성공을 확신한다"고 자신했다.

김 사장은 또 "휴대폰용 멀티미디어 칩 개발 완료 단계에 있어 올해 말이면 최신 65나노 공정으로 생산된 고성능 멀티미디어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타마이크로, H.264지원 보안용반도체 출시

펜타마이크로(대표 정세진 www.pentamicro.com)가 차세대 영상 압축표준인 H.264를 지원하는 보안용 반도체 부품 시장에 진출했다.



펜타마이크로는 보안카메라로부터 들어온 영상을 최대 16개 화면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16채널) 영상압축·복원칩(코덱)인 멀티스트림6(Multi-StreamVI)을 출시했다.

회사 측은 차세대 영상압축표준인 H.264를 지원하는 이번 반도체 부품은

H.264 이외에도 MPEG4와 MPEG2, MPEG1, H.263, JPEG 등 대부분 영상 표준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영상저장장치(DVR)와 네트워크카메라 등 보안시스템에 최적화됐으며, H.264 표준을 지원함으로써 높은 영상 압축률과 고화질 등으로 보안업체 요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또한 이 부품은 압축된 영상데이터를 저장하고 재생, 전송할 경우에 필요한 USB, 이더넷(Ethernet), PCI 등 대부분 외부 전송(인터페이스) 기능들을 내장하는 한편, 중앙처리장치(CPU)도 탑재했다.

정세진 사장은 "기존 MPEG4에 이어 H.264 코덱 출시로 영상 압축과 복원에 따른 보안용 반도체 부품 라인업을 확대했다"며 "보안부문에서 확보한 기술력

을 바탕으로 디지털 일반소비가전(컨슈머)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DS테크놀로지, 알테라코리아와 업무 제휴

MDS테크놀로지(대표 김현철 www.mdstec.com)는 알테라코리아와 알테라에서 취급하는 FPGA 전 제품을 국내 대학에 독점 공급기로 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DS테크놀로지는 수요가 많은 개발 보드와 FPGA 디바이스 제품의 마케팅에 우선 착수했다. 앞으로 알테라코리아와 공동으로 대학과 기업고객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FPGA는 사용자가 설계한 논리회로를 프로그래밍해 동작시킬 수 있는 반도체다. 통신키터에서 디지털TV, LCD, 반도체 테스트 장비 등으로 적용 영역과 사용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김현철 사장은 "세계 최대 FPGA 반도체 업체인 알테라의 한국법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국내 대학의 FPGA 설계 기술 발전에 기여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기존 임베디드 사업부문과 다양하게 접목해 임베디드 솔루션 시장 리더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iPROVE 300대 판매 기념 고객 감사 이벤트

특전1_ 업그레이드 비용 30% 할인 : iPROVE 제품군 중 고객이 원하시는 FPGA 사이즈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특전을 드립니다. 특전2_ 견적 요청 시 USB메모리(2G) 증정(선착순 30명) : iPROVE 제품에 대한 견적만 요청하셔도 USB 메모리(2G)를 드립니다.

제품문의 : 오정현 과장 (02-2106-6066, junghun@mdstec.com)

홈캐스트, 말레이시아 MiTV에 600만달러 규모 셋톱박스 공급

홈캐스트(대표 이보선 www.homecast.net)는 말레이시아 MiTV에 600만달러 규모 디지털 셋톱박스 공급에 관한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MiTV는 아리랑TV 등 한국방송 3개 채널, 중국방송 3개 채널, 싱가포르 채널뉴스 아시아 등 현재 VOD와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포함해 50여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2대 방송사업자다. 홈캐스트는 MiTV에 CAS가 내장된 디지털 셋톱박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홈캐스트는 올해 인도 선(Sun) TV와 500만 달러 규모 디지털 셋톱박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말레이시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업망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보선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2011년을 기점으로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하고 디지털 방송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반기 아시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성장율이 가장 높은 아시아 지역을 적극 공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료제공]

- [1] 전자신문 www.etnews.co.kr
- [2] 디지털타임스 www.dt.co.kr